

보도시점

(지 면) 5. 2.(목) 조간
(인터넷) 배포 즉시

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·육성 지원

-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에 홍보/광고, 디자인 개발, 국제운송비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14개 분야 서비스를 지원
-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지정서 발급 및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

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강해수, 이하 인천중기청)은 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'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‘수출바우처’는 정부보조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사업기간 내에 14가지 메뉴판*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각종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다.

* 시장조사/일반컨설팅, 통·번역, 역량 강화 교육, 특허/지재권, 서류대행/현지등록, 홍보/광고, 브랜드 개발·관리,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 지원, 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, 디자인 개발, 홍보 동영상, 해외규격인증, 국제운송, 무역보험·보증 등

수출바우처는 수출액 규모에 따라 5단계(내수-초보-유망-성장-강소)로 구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부보조금을 지원한다.

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은 5월 초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2025년 2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2024년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은 5월 중 공고될 예정이며, 현재 지역특화 프로젝트 『레전드 50+』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대하여는 평가를 진행 중이다.

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수출액 규모에 따라 글로벌 유망, 성장, 강소, 강소+ 4단계로 나누어 선정하고, ‘25년 12월 31일까지 22개 수출유관기관*의 수출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한다.

* (수출지원) 중소벤처기업부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무역협회, KOTRA 등 6개 기관
 (여신·보증)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, 무역보험공사, 수출입은행 등 6개 기관
 (금리 등 거래조건) 기업은행, 농협 등 10개 은행

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 참여기업은 선정된 첫해에 수출바우처를 우선 발급하며, 특히 글로벌 강소·강소+ 지정기업은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,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가점 부여, 정책자금 융자한도 우대, 수출지향형 R&D 우대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우리 지역에서는 2024년 수출바우처사업 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 참여기업 모집에 396개사가 지원하여 119개사가 선정되었다.

한편 수출바우처 선정기업은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에서 선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, ‘글로벌 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’ 지정기업은 5월 중 지정서와 지정패(또는 현판)가 전달될 예정이다.

강해수 인천중기청장은 “이번 참여기업 선정이 우리 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다변화 등에 도움이 되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하였다.

담당 부서	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수출지원센터	책임자	과 장	노성현 (032-450-1111)
		담당자	수출전문관	정상철 (032-450-1135)

